

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
보고 안건

「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-19」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

2020. 2. 20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최근 수출 동향 및 평가	1
II. 기본 추진방향	5
III. 3대 중점 지원대책	6
1. 「코로나19」 관련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	6
2.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	19
3.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	28
IV. 향후 계획	34

I. 최근 수출 동향 및 평가

◇ 최근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선 조짐

□ 美·中 무역분쟁 장기화,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출 부진 지속

○ 올해 들어 ①세계 경제 성장률 상향 전망, ②반도체 업황 개선, ③수주 선박 인도 본격화 등에 따라 수출여건 개선 가능성

- 특히, 1월 수출은 ①일평균 수출액이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, ②반도체·선박 업황 개선 및 ③수출 단가 증가(+4.4%) 등 회복 조짐

* 일평균 수출(억불) : ('19.1)19.2 → (2)20.8 → (3)20.9 → (4)20.3 → (5)19.9 → (6)20.5 → (7)18.4 → (8)18.7 → (9)21.8 → (10)20.3 → (11)18.7 → (12)19.9 → **(20.1)20.2**

○ 당초 주요 연구기관들도 금년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

< 주요 연구기관별 '20년 수출 전망 (단위, 억불, %) >

구 분	한국은행	산업研	KDI	무역研	현대研
전 망	5,550(1.3)	5,597(2.5)	5,882(4.0)	5,610(3.3)	5,555(2.3)
전망시점	'19.11월	'19.11월	'19.11월	'19.11월	'19.11월

◇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 우려

□ 금년 2월 우리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회복 추세였으나,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우리 일평균 수출(2.1~10, 15.3억불)이 감소

* 2월 수출(2.1~10) : 107억불, 69.4%

※ (참고) 중국시장은 우리 총 수출의 1/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·석유화학 의존도 역시 높은 상황

* 對中 수출 비중(%) : ('14)25.4 → ('15)26.0 → ('16)25.1 → ('17)24.8 → ('18)26.8 → ('19)25.1

* 對中 수출 비중(%, '19) : (반도체)39.7, (석유화학)43.6, (일반기계)23.5

◇ 코로나19 확산은 사스보다 더 큰 영향

- 글로벌 경제와 분업구조에서 중국이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과거 '03년 사스 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파급 영향이 더 클 전망
 - 우리의 對中 수출 비중, 중국이 구축한 글로벌 공급망에의 참여도를 고려할 때, 우리에게 대한 중국경제 영향도 크게 증가
 - * 중국向 중간재 수출국 : (1위)韓, (2위)美, (3위)日, * 중국産 중간재 수입국 : (1위)韓, (2위)美, (3위)日
 - 한편, 과거 사스는 확산 이후 1분기 내로 영향이 제한적
 - * 對中 수출 증감률(%) : ('03.1)55.6 → (2)81.0 → (3)49.7 → (4)37.8 → (5)27.5 → (6)41.9 → (7)47.5

■ (참고) 2003년 사스 대비 2020년 코로나19 영향 검토

- 코로나19는 '03년 사스 사태 시보다 △기간, △對中 수출비중, △글로벌 공급망, △중국 경제규모 등에서 차이 → 우리 수출에 큰 영향
 - ▶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 경제 비중(%) : ('03) 4.3 vs ('19) 16.9(4배)
 - ▶ 상품 교역 부가가치(GVC, 중국/세계) : ('05) 7.4% vs ('15) 19.1%(2.6배)
 - ▶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비중(%) : ('03) 18.1 vs ('19) 25.1(1.4배)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도 하방 위험 우려
 - 최근 美·中 1차 합의 등에 따라 중국 경기 회복이 기대되었으나,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3~4%대, 연간 5%대까지 하락 가능성
 - * 중국 경제성장률(IMF, %) : ('16)6.7 → ('17)6.8 → ('18)6.6 → ('19)6.1 → ('20°)6.0
 - 장기적으로 현지 공장 가동 중단·소비둔화로 中 GDP 감소 → 세계 소비·투자 부진으로 세계 경제 GDP 감소 → 韓 수출 감소

< 글로벌 연구기관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'20년 한국 수출 전망 >

기관	수출 전망	수출 차질액	
		연간	월간
Bloomberg	2.1%	△49억불	△4.1억불
JP Morgan Chase	1.8%	△65억불	△5.4억불
Societe Generale	1.7%	△71억불	△5.9억불

◇ 코로나19는 수요·공급·가격 측면에서 우리 수출에 영향

□ (수요 둔화) 코로나19는 중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(IMF)

▶ 중국 GDP 성장률 1%p 하락시 우리 수출 1.74%p 감소(한국은행, '19.8)

- ▶ (반도체) 현지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 → 단기 영향은 제한적
장기화 시* 데이터 센터·스마트폰용 D램 수요 감소 → 회복세 지연
* 글로벌 서버 생산 70%를 차지하는 中 ODM 업체의 연휴 연장에 따라 서버·모바일 등 수요 감소 우려
- ▶ (가전·섬유) 중국 등 글로벌 수요 둔화 → 소비재 수요 감소 우려

□ (공급 차질) 현지가동 중단, 부품수급 지연 등 공급 측면 영향

- (현지 가동 중단) 춘절 연휴 연장에 따라 현지 공장 가동 중단 및 협력사 수급 차질 발생으로 조업일 증가(2월, +3.5일) 효과 상쇄

- ▶ (디스플레이) 중국 현지 모듈공장 가동 중단 → 디스플레이 생산 차질
- ▶ (휴대폰 부품)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공장 가동 중단 → 對中 수출 감소
* 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中 전자·통신장비 수출 비중(%) : 12.3('03) vs 31.6('18)

- (공급망 차질) 중국發 중간재 등 부품 수급 지연으로 국내 기업 휴업 발생 등 국내 제조업 생산 차질 현실화

- ▶ (자동차·기계)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차질 → 국내 자동차·기계 조업 중단
* 국내 완성차 기업 휴업 일수 : △1일~△7일 순차 휴업, 가동을 저하
- ▶ (車부품) 국내 완성차 조업 중단 → 車부품 연쇄 생산 중단
* 완성차 휴업 → 모듈 공장 휴업 + 부품 중소기업 휴업 + 타이어 공장 가동 중단

□ (가격 하락) 코로나19 확산이 석유수요 감소로 이어져 유가 하락 유도

* 국제유가(\$/B, %) : ('19.2) 64.6(3.0) → ('20.2.14) 55.2(△15.4)

- ▶ (석유제품·석유화학) 유가 하락 → 주력 수출품목 단가 하락
* 석유제품 수출단가(\$/B) : ('19.2) 71.8 → ('20.1)75.0 → ('20.2°) 65.5(△8.7)
석유화학 수출단가(\$/톤) : ('19.2) 1,173 → ('20.1)1,060 → ('20.2°) 1,000(△14.7)

◇ 통상 환경과 리스크 변화를 감안, 과거와는 다른 정책 대응이 필요

- 최근 들어 자국우선 및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
 - 국가안보·핵심기술 보호를 앞세우며 수출입·투자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, 미국·중국·유럽연합(EU) 등 주요국간 통상 마찰 심화
 - 또한,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약화, 소규모·양자 무역블록 등장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
- 더욱이, 코로나19는 과거 수출 리스크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
 - 특정 품목·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최근 美·中 무역 분쟁, 日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는 공급망 리스크를 더욱 가중
 - * 수출 집중도(무역협회, '18년) : 韓(1,063), 日(925), 美(745), 中(659), 佛(548), 獨(426)
 - 수출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수출구조 고도화라는 구조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

◇ 분야별 대응과 중장기 대응을 아우르는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

- 작년 「수출활력 제고 대책(19.3월)」 이후 범정부 차원의 수출 회복 노력 지속 →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을 한층 보강
 - 최근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대응하여, 그간 마련해온 분야별 지원 대책*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
 - * 세정·통관(2.5), 자동차 부품·금융(2.7), 해운·항공(2.17)
- 효율성 중심으로 구축해온 글로벌 공급망도 안정성 측면에서 정비
 - 또한,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 경쟁력·한류·혁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무역구조 고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

- 우선 당면한 수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고, 수출활력 회복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전환에 총력 경주
-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무역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해 2030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

II. 기본 추진방향

목 표

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년 수출 4강 도약

방 향

- ▶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리스크 신속 대응
- ▶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

과 제

민·관 합동으로 10대 중점 과제 집중 추진

단
기

1.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

- ① (금융 보강) 긴급 유동성 보강
- ② (물류 지원) 물류·통관 신속 지원
- ③ (조업 재개) 방역, 인·허가 등 조업재개 지원
- ④ (기회 확보) 전시회 등 수출기회 확보 지원
- ⑤ (분쟁 대응) 납기지연 등 분쟁대응 지원

중
장
기

2.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

- ⑥ (유턴 확대) 핵심품목 관련 유턴기업 지원
- ⑦ (투자 지원) 전략적 국내 투자 지원 재편
- ⑧ (위험 분산) 공급망 재편 및 리스크 분담 지원
- ⑨ (진입 강화) 소재·부품·장비 글로벌 공급망 진입 강화

3.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

- ⑩ (집중 추진) 수출 주체·방식·품목·시장 등 4대 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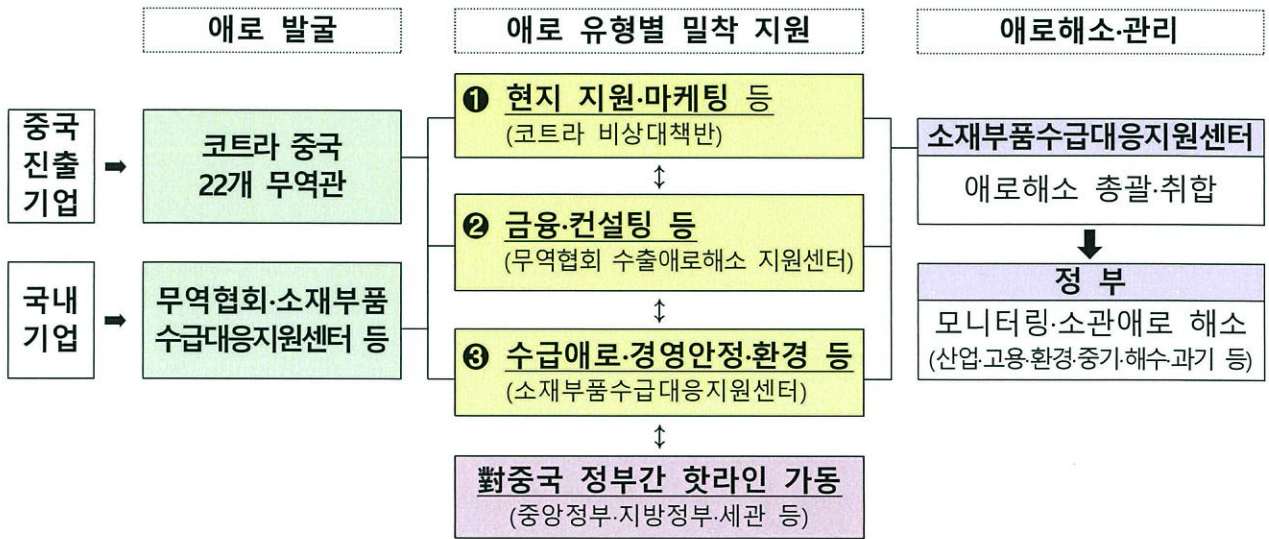
Ⅲ. 3대 중점 지원대책

1 「코로나19」 관련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

◇ 민·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애로해소 체계 신속 가동

-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에 대해 유형별로 신속 대응
 - 코트라·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, 관계부처·유관기관이 소관 애로에 대해 밀착 지원·해소 중
 - 작년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마련한 '소재·부품·장비 수급대응지원센터*'를 중심으로 물류·통관·인력·환경·금융 등 소방위 지원
 - * 수급대응 지원센터 : 7개 부처·15개 기관 (총 24명) →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 지원
 - 또한, 산업·중기·항공·해운·고용·환경 등 각 부처별로 신속대응반을 즉시 가동하여 분야별 동향 점검 및 애로해소 지원 추진 중
- 특히, 중국 중앙·지방정부와 분야별 핫라인을 통해 신속 해소 지원
 - 외교부·9개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기업·지원기관* 등과 「민·관 합동 在中기업 애로지원 T/F」를 구성·운영
 - * 코트라, 상회, 중소기업협회, 무역협회, 무보, aT
 - 통관·물류·노무·세무·외환 등 기업애로 적기해소 지원
 - 산업부도 진출기업 수, 애로해소 시급성 등을 고려해 10개 중국 지방정부*와 긴급 핫라인(국장급)을 구축·가동
 - 조업 재개 조기승인, 방역물자 지원 등 기업애로 신속 해결
 - * 산둥성, 장쑤성, 광둥성, 산시성, 쓰촨성, 안휘성, 저장성, 랴오닝성, 충칭시, 텐진시
 - 또한, 기업 애로가 큰 물류·통관 분야도 관세청과 중국 해관간 핫라인을 통해 중국 현지 및 국내 신속 통관처리 등 다각적 지원
 - 검역위생·물류 등 분야별로 관계당국간 對中 협의채널 확산 추진

< 코로나19 관련 민·관 기업 애로해소 대응체계 >



□ 그간 제기된 애로는 422건으로 171건 해소, 251건 검토중 (2.19 기준)

① 국내 기업 : 원자재 조달, 거래 중단 등의 애로 호소

< 국내 애로 관리 현황 (~2.19, 누적) >

구분	원자재 조달	계약 불이행	통관·물류	대금회수 지연	마케팅 등	합계
검토	44	7	17	10	4	82
해결	49	31	17	3	7	107
누계	93	38	34	13	11	189

○ (수급) 현지 공장 조업 중단·지연으로 국내 생산 차질

▶ (측정기기제조 A社) 중국부품 수급 곤란에 따라 제3국 대체처 발굴 지원 요청

○ (물류) 중국 현지 물류·통관 지연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차질

▶ (자동차부품 B社) 중국 내 통관과 내륙 운송 정보 요청

○ (금융) 중국 거래처 연락 두절 등에 따른 대금 未회수·지연

▶ (디스플레이장비 C社) 중국업체 선적보류 요청에 따라 항만 보관비용 과다 발생

○ (마케팅) 전시회 취소 등에 따른 수출기회 확보 애로

▶ (화장품 업체 D社) 3월 뉴욕 화장품 전시회 개최 불투명 및 국제박람회 취소

② 중국 진출기업 : 조업 중단과 경영상 애로 호소

< 현지 애로 관리 현황 (~2.19, 누적) >

구분	위생용품 조달	인력 운영	원자재 조달	금융 등	합계
검토	58	41	26	44	169
해결	21	18	10	15	64
누계	79	59	36	59	233

○ (방역) 중국 현지공장 조업을 위한 위생용품 조달 애로

▶ (자동차 전장업체 A社) 한국 본사에서 출장자를 통해 마스크 확보 노력 중이나, 개인반출 제한으로 인해 확보 어려움

○ (인력) 생산 정상화를 위한 인력 운영 어려움 호소

▶ (스마트시티 관제 솔루션업체 B社) 중국 현지법인 직원 재택근무로 영업활동 지연·중단 등 경영상 피해 발생

○ (물류) 중국 성간 물류이동 제한 등으로 원자재 조달 애로

▶ (철강업체 C社) 도로폐쇄, 성간이동 시 운전자 격리 등 성간 이동통제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내륙운송 애로 발생

◇ 코로나19 관련 민·관 기업애로 해소 대응체계를 통해, 조업 재개·부품 수급 등 애로를 속도감 있게 해소 → 조기 정상화 지원

* (예) (자동차 부품) 중국 소재 와이어링 하니스 부품기업 공장 40개 모두 재가동

◇ 아직 국내·현지진출 기업들은 코로나19 관련 자금·비용, 마케팅, 물류·통관, 방역물자 수급, 인력 등에서 여전히 애로 호소

→ 민·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기업애로는 밀착 관리·해소하되, 공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

[참 고]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대응 · 지원체계

현 지 대응	정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在中기업 애로지원 T/F (베이징 등 9개 공관) · 비상대책반 (코트라 22개 주중 무역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업 애로접수·현지지원
	민 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무역협회 (한국기업협의회, 베이징·상하이·청두) · 대한상의 (북경사무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국 중앙·지방 정부 협의



기업애로 밀착 관리 및 해소 지원	
· 총괄 :	민·관 합동 소재·부품·수급대응지원센터 (수출·환경·인력·금융·규제 등)
· 협조 :	코트라 (비상대책반), 무역협회(수출애로해소지원센터)



국 내 대응	소관 애로 해소 / 지원	국조실	· 일일 상황점검, 유관부처 협의 (종합 상황실)
		기재부	· 경제상황 종합점검, 재정·세제지원 (코로나19 경제관계장관회의)
		산업부	· 산업·무역 분야 기업애로 해소·지원 (산업·무역 비상 T/F)
		외교부	· 중국 중앙정부·지방정부 협의 (종합 대응반 회의)
		고용부	· 고용노동 분야 애로해소·지원 (코로나19 대응 T/F)
		농식품부	· 농식품 수출, 외식 등 대응·지원 (코로나19 대응 전담반)
		국토부	· 항공·화물·철도 분야 대응·지원 (코로나19 대응 대책반)
		해수부	· 해운·항만·수산 분야 대응·지원 (코로나19 대응 상황반)
		과기정통부	· ICT 분야 애로해소·지원 (코로나19 ICT 민관합동 대응반)
		중기부	· 중소기업·소상공인 애로해소·지원 (코로나19 비상 대응반)
		문체부	· 관광분야 애로해소·지원 (코로나19 대응 관광비상대책반)
		금융위	· 금융부문 대외 리스크 점검·지원 (금융상황점검회의)
		관세청	· 통관·관세 애로해소·지원 (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)

對中 협의 채널	외교부	· 본부 ↔ 중국 정부·주한 중국대사관
		· 공관 ↔ 지방 정부·현지진출 기업·유관기관 등
	산업부	· 산업부 ↔ 10개 중국 지방정부 핫라인
	관세청	· 관세청 ↔ 中 해관 핫라인

1-① 긴급 유동성 보강

◇ 무역금융 260조원 (+3.1조원) 신속 지원

- 올해 무역금융은 작년보다 **28.1조원 늘린 260.3조원 공급**
(무보, 수은, 산은, 기은, 신·기보, 중진공)
- 특히, 금번 대책으로 당초 계획 대비 **3.1조원**을 추가 지원하고, **상반기에 156조원**을 집중해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 지원
- **중소·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** 공급

< '20년 무역금융 유동성 확대 지원 (단위 : 조원) >

구 분	'19년	'20년		
		당 초	변 경	(추가 공급)
총 계	232.2	257.2	260.3	+3.1

- **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'금융 지원 프로그램' 확대**
- 對中 수출 후 수입자의 대금 未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·중견기업에 무역보험 신속보상,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 자금애로 해소

① 신속 보상

- 무역보험 가입 기업은 보험금의 80%까지 가지급하고, 보험금 청구 후 2개월에서 1개월로 보험금 신속 보상
- 불가항력사실증명서 제출 시 2주일 이내 보상 추진

· (식품 G社) 2년 넘게 거래해왔던 중국 도매상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무 상황 악화로 파산하여 보험금 신청 예정이나, 조사 장기화로 보험금 지급 지연 및 유동성 악화 우려

② 채권회수 대행

- 무역보험 未가입 기업은 해외채권 추심 전문기관*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제공

* 무보는 전 세계 39개국 97개 채권추심기관과 제휴 (중국 6개 추심기관 포함)

▶ (의류 J社)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입자 재무상황 악화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으나 무역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대금 未회수 우려

③ 수출이행자금 우대지원

- 수출계약 파기, 불가항력 물류 지체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 등 피해 우려기업에 무역금융 우대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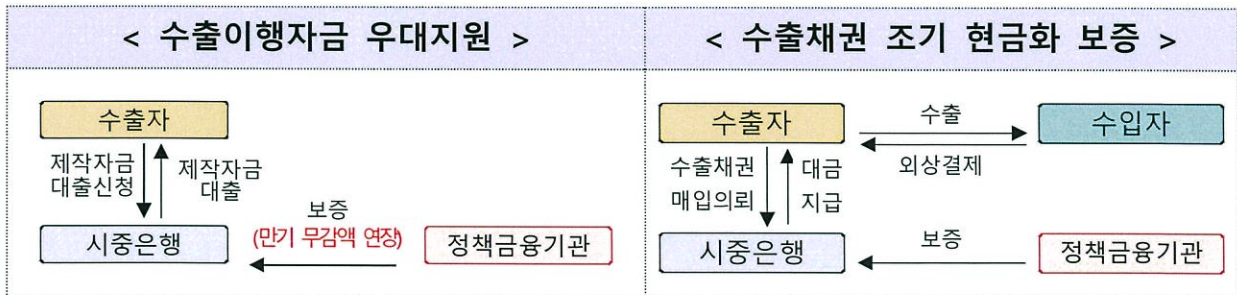
* 지원 : (既이용기업) 한도무감액 1년 연장, (신규이용) 보증료 할인(20%)

▶ 전자부품 F사는 수출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은 자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으나, 수입자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수출대금을 회수받지 못하여 대출금 상환에 애로

④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 확대

- 중소·중견기업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기반 자금공급 확대

▶ 기계설비 E사는 중국수입자와의 거래시 물품선적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 받아왔으나, 최근 수입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환경 및 유동성의 악화로 장기 여신거래를 요구



⑤ 수출 중소·중견기업 온렌딩 등 지원 확대

- 수출 중소·중견기업 대상으로 운전·시설·제작자금에 대한 대출을 당초 계획 대비 1.1조원 추가 확대

* 수출 중소·중견기업 온렌딩 등 공급(산은수은) : (당초) 6.9조 → (변경) 8조 (+1.1조)

1-② 물류·통관 신속 지원

◇ 신속한 물류·통관 등 수출·생산 차질 조기 해소

□ 내륙 운송 등 중국 내 물류이동 지원

- 수출업계 물류애로 지속 시 해외 공동물류센터* 추가 지정, 내륙 냉장·냉동운송 지원** 범위 확대 (~2월말, 농식품부)

* 현재 중국 15개소 운영(현재 이용료의 90%(신선), 70%(가공) 지원)

** 베이징·상하이 등 38개 도시 운송 지원 중이며, 운송비의 80% 지원

- 중국 내륙운송, 항만·통관·이동통제 등 수출·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·입기업 및 중국진출 물류기업과 실시간 공유 (코트라·무역협회)

▶ (물류업계) "중국 내 교통통제 정보 등이 공유되지 않아 항만으로 출발한 컨테이너가 그대로 돌아오는 상황도 발생"

- 부산·인천항 환적화물 입항 증가, 중국向 수출화물 출항 지연에 따른 하역 지체, 장치공간 부족 문제 해소(2.13~, 관세청)

▶ (하선) ①입항 후 하선지연 시 하선장소 반입기한 연장 신청 즉시 승인, ②입항 전 보세운송신고 즉시 처리, ③불개항 출입과 항외 하역·환적 허가신청 즉시 처리

▶ (장치) 하선장소가 아닌 보세구역에 환적화물 컨테이너 반입·장치 및 보세운송 허용 (필요 시 보세구역 외 장치장 적극 허가, 임시 지정장치장 지정 검토)

▶ (적재) 수출신고수리물품 적재이행기간 위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연장 지원

- 유희 선석, 배후단지 등 대체 장치장 확보 및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

* 중국 내 통관내륙 운송 지연 시 국내항으로 물량 일시이전에 따라 터미널 장치장 포화 등 우려

** 대체장치능력 : 부산항(29,070TEU), 인천항(15,250TEU), 광양항(39,054TEU)

- 對중국 수출 물동량 등을 고려하여 항공사·선사의 화물노선 증편 요청시 즉시 조치 (국토부·해수부)

□ 국내·현지 신속 통관 지원

-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부과* 특례를 부여하고, 2.5일자 소급 적용 (관세청)
 - * 수입물품 관세 = (물품가격+운임+보험료 등) × 관세율, 항공운임은 해상 대비 15배 이상
- 국내 신속 통관을 위해 **24시간 통관지원체계 운영, 심사 최소화**
 - * 전국 세관 근무시간 외에도 통관처리, 긴급통관 요청 및 애로사항 접수시 최우선 처리
전국 주요 세관 내 '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' 운영중(2.5~)
- 해외 현지통관 지원, 中 지방정부 도로 이동 제한 예외 적용 등에 대해 중국 중앙·지방정부와 지속 협의 (외교부, 관세청)
- 「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」(관세청)을 통한 對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 (중국 해관 정상근무 여부 등 정보 공유)
- 피해기업 대상 관세혜택 지원(납기연장·분할납부·환급지원 등) 및 조사·검사(관세조사·외환검사·원산지 검증 등) 유예

□ 해운·항공 등 국내 물류 활성화 지원

- 우수 선·화주 기업(해수부, '20.7월 선정)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*으로 선사의 안정적 화물 조달 여건 마련
 - * △0.20%p 금리 우대 신설 (수은), 우수화주(포워더) 법인세 감면
- 한·중 여객항로 감축*에 따른 화물운송이 위축되지 않도록 항만시설 **사용료 감면**** 및 긴급 경영자금(300억원, 2% 내외) 지원(해양진흥공사)
 - * (평시) 14개사, 16항로, 주 46회 운항 → (감축) 13개사, 15항로, 주 35회 운항(2.10 기준)
 - ** (현행) 30% 감면(연 약 30억원) → (개선) 60~100% 감면(연 약 30~85억원 추가 감면)
- 항공업계 국제선 항공운임에 대한 수출실적 확인·증명 시스템 구축을 통해, 수출실적을 근거로 중소·중견 항공사 대상 수출자금 공급 (수은)
- 항공기 구매자금 뿐 아니라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, 임차보증금 등을 수입자금으로 신규 지원 (수은)
- 해외노선 유류비, 해외 사무소 운영비 등 해외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로 신규 지원* (수은)

· (지원사례) ○○항공 대상 해외사업금융보증 지원 ('19.1월, 3백억엔)

1-③ 조기 조업재개 지원

◇ 인·허가, 인력, 방역 물자 등 조기 조업재개 지원

□ 국내 조업재개 지원

① (인·허가 패스트 트랙) 對日 159개 화이트리스트에 적용 중인 화학 물질 관련 인·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 (환경부)

- ①화학물질 취급시설 인·허가 심사기간 단축 (75일 → 30일)
- ②R&D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 (최대 14일→익일 처리)

- 아울러, 기업 요청시 △취급시설 안전관리 1:1 현장밀착 컨설팅, △등록 소 과정 지원 등 우선 지원 추진 (환경부)

② (인력애로 해소) 국내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한 특별연장근로 인가*, 생산인력(자동차 기업 퇴직인력 등) 긴급투입 등 지원 (고용부 등)

*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(2.14일 기준, 고용부) : (신청) 69건 → (인가) 57건

③ (수급 안정화) 필요시 국내 수급안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, 긴급 수급 안정화 조정명령* 등 실행

* 생산계획 수립·변경, 국내 우선공급, 운송·보관·비축·양도, 대체품목 실증 등

- 대체 가능한 제3국 공급업체 발굴 등 다변화를 지원하고(코트라), 신속한 생산투입에 필요한 경우, 단기 R&D, 양산·실증 평가 지원

□ 중국 진출기업 조업재개 지원

○ 조업 재개에 필요한 보건용품 수급을 위해 해외 조달 가능기업을 발굴, 무역상사를 통해 중국 진출기업에 신속 공급 추진 (코트라)

- (공급처 확보) 코트라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 마스크, 손소독제 등 조업 재개에 필요한 보건용품 공급 가능한 해외업체 발굴
- (수요조사) 코트라 中 무역관,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현지 조업 재개를 위해 보건용품 조달이 시급한 중국 진출기업 수요 조사
- (무역상사 매칭) 전문무역상사 등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 무역상사를 통해 긴급 수요기업 중심으로 신속 공급 추진

1-④ 수출 기회 확보

◇ 수요와 역량 확충 중심으로 수출 마케팅 총력 지원

- 올해 수출 마케팅 지원은 5,112억원(+14.4%)으로 활력회복 총력
 - 기업 역량과 품목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,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 집중 (4,200개社)
- 우선 전시회 수출 애로기업 중심으로 화상 상담회 지원
 - 「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」(2월, 코트라)을 구축해, 중국 바이어와의 거래 지속 및 수출 영향 최소화 지원
 - 해외 바이어 모집에 애로를 겪는 국내 수출 상담회,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회 개최 (연 상담 2,000건)
 - * (대전·충남) 보건·의료 화상상담회(2월), (울산) 특별 화상상담회 추진(1분기), (충북) 화상상담회 2회 추진(상반기) 등
- 지역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「수출활력촉진단 2020」 신규 가동
 - 작년에는 수출애로 해소에 주력 → 올해는 실질적 수출확대를 위해 기업의 수출 중단방지, 수출 다변화, 수출 역량강화에 집중
 - 전국 순회 ①수출 초보기업-전문무역상사 상담회, ②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, ③글로벌 산업·기술 트렌드를 연계한 컨설팅 추진
 - 3월 부산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전국 순회(4회) 개최 추진

◇ 전시회·사절단 탄력적 일정 조정 등 수출 차질 방지

- 해외전시회·무역사절단 등 계획된 지원은 차질없이 추진
 - 다만, 시기 조정(상반기→하반기) 및 지역 변경(中→新남방·EU 등)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마케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

① (전시회) 그간 전시회 취소 11건 → 기업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 중 동일·유사업종 전시회 17회에 대체 참가 지원

* '20년 한국관 구축 중국 전시회 33회 중 취소 10회, MWC 취소 등 11회 (2.19 현재)

구 분	주요 내용	예 시
신 규 (6회)	· 유사업종 전시회 신규 선정 → 피해기업 우선 지원	· 상해 디스플레이(4월) → 마드리드 전자(11월) · 북경 프랜차이즈(3월) → 시카고 프랜차이즈(11월) · 광저우 치과(3월) → 상하이 치과(10월)
기 존 (11회)	· 기존 전시회 참가 확대 → 피해기업 추가 참가 지원	· 북경 조선(3월) → 싱가포르 조선 등(9월) · 상해 반도체(3월) → 대만 반도체(9월) · 우한 냉동공조(4월) → 필리핀 냉동공조(11월)

② (사절단) 취소·연기·변경 30건 → 新남방·新북방 사절단으로 대체, 하반기 일정 조정, 화상 상담회 대체 등 지원

* '20년 무역사절단 213건 중 지역변경 13회, 일정변경 11회, 대체 6회 (2.19 현재)

구 분	주요 내용	예 시
지역 변경 (13회)	· 파견지역 변경 (중국 → 新남방·북미 등)	· 충북 중국 통합마케팅 사절단 : 우한(4월) → 울란바토르 등(5월)
일정 변경 (11회)	· 파견시점 변경 (상 → 하반기)	· 중국 남부 시장개척단(샤먼 등) : 4월 → 8월 · 강원 소비재 사절단(마닐라 등) : 2월 → 8월
대체 (6회)	· 대체 마케팅 추진 (사절단 → 화상 상담회 등)	· 대구 CIS 의료&바이오(카자흐, 4월), 대구 대양주(호주, 2월) 등 → 화상 상담회

□ 對中 수출기업 및 해외 마케팅 피해기업 지원

- 對中 수출비중이 50% 이상 및 상반기 취소 전시회 참가기업은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가점(+10점) 한시 부여
- 피해 기업이 제3국 대체시장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사용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

- 글로벌 전시회 취소(MWC 등)로 인한 비즈니스 수요를 국내 전시회로 연결하여 수출판로 개척 등 사업 지원 (과기정통부)

* 해외바이어 초청 등 스타트업·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진출 지원('20년 6.49억원)

-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기업(50% 이상)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신규 바이어 무료 발굴, 현지 상담 지원(통역·차량 등 50% 할인)

* (시장조사) 기존 국가당 30만원 → 무료, (출장지원) 기존 50~140만원 → 50% 할인

** 농식품 수출기업 중 특정국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 대상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(0.5%p)

□ R&D 참여 중소기업 재정적 부담 경감 (과기정통부·산업부)

-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*·감면 추진

* ICT R&D 기술료 징수 규정(과기정통부),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(산업부) 개정

- 용자 신청 검토기간을 단축(6주→3주)하여 우선 지원('20년 256억원)

* 대상 : ICT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(대중국 수출 수입비중이 20% 이상인 기업)으로 피해사실이 확인 된 기업

- 피해 중소기업의 R&D 민간 부담금 비율을 완화*하고, 계속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사용**할 수 있도록 허용

* (예) 25% → 20%, 정부출연금 75% → 80% 상향 지원 (상세비율은 조정 可)

◇ 국내 전시회 정상 추진 및 피해 지원

□ 정부·지자체 전시회 예정대로 진행 → 민간 전시회 정상 개최 유도

- 전시회 방역 관리를 중점 지원하고, '전시회 개최 가이드라인' 확산

< 국내 전시회 개최 가이드라인 (전시산업진흥회) >

- (정상 개최) ①공공 주최 (공공성), ②바이어 등 해외기업 참여 (대외무역 진흥), ③B2B(기업거래 촉진), ④피해 우려 (파급 영향) 등은 당초 일정대로 개최 권고
- (방역 시스템 구축) 철저한 검역·방역 시스템 선행 구축
- (애로 접수) 전시산업진흥회 내 '코로나19 대응센터' 운영

- 연기 전시회는 시기 조정·유사 전시회 통합 등 대체 개최 지원

* 전시산업진흥회, 전시 시설사업자 및 주최사업자 등으로 협의체 구성·운영

□ 취소·연기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전시 사업자* 애로 해소 지원

* 전시 시설사업자, 주최사업자, 디자인설치사업자, 서비스사업자

- ▶ '20년 2~3월중 계획된 전시회 60개 중 32건 취소·연기 (취소 6, 연기 26)
→ 각종 위약금, 급격한 매출 감소 등 다양한 손실 발생

○ 전시업종 피해 중소기업*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,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지원 (중진공)

* 전시회 취소·연기 등으로 인해 매출이 10% 이상 감소한 피해 중소기업

○ 은행권 기존대출 만기 연장(연장시 가산이자 제외), 원리금 상환 유예, 저리 자금 대출, 신·기보를 통한 보증 및 만기연장 지원

○ 법인세·부가가치세 등 신고·납부기한 연장, 징수·체납처분 유예,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

1-6 분쟁대응 지원

□ 기업 대상 매뉴얼 배포·설명회 개최

- 대응요령, 체크리스트, 판례 등을 담은 「상황별 불가항력 피해 대응 매뉴얼」 제작 및 무역업체 배포 (2월중)
- 지원기관 합동 「코로나19 불가항력 대응 설명회」 개최(2월중)

□ 피해기업 대상 신속지원 추진

- Trade SOS(무역협회) 국제변호사,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개별 기업 1:1 법률 컨설팅 및 상담 서비스 지원(상사)
 - 특히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으로 중재비용 감면*, 무료 알선·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 신속 지원 (상사중재원)

* 소액사건(2억원 이하) 대상으로 중재 소요 비용의 50-95% 범위에서 지원

○ 필요시, 납기 지연 등 불가항력 관련 사실관계 조사·확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법적분쟁 대응 지원 (무역협회)

- 또한, 법률 검토를 거쳐, 우리 기업에 대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 여부 검토

< 글로벌 공급망 현황과 변화 >

- (현황) 우리 소재·부품·장비 품목 대외 의존은 상위 5개국(中·日·美·臺·獨)에 전체 1,888억불의 70%를 의존

* (비중) 中 28.4% → 日 17.0% → 美 12.2% → 臺 6.7% → 獨 5.1% 순

'19년	①중국	②일본	③미국	④대만	⑤독일
수입액	537억불	321억불	230억불	127억불	96억불
주요품목 (국내수입 대비비중)	비금속제품(40%) 자동차부품(35%)	정밀화학(42%) 정밀가공장비(34%)	반도체장비(27%) 정밀기기부품(21%)	전자부품(17%)	정밀가공장비(15%) 정밀부품(1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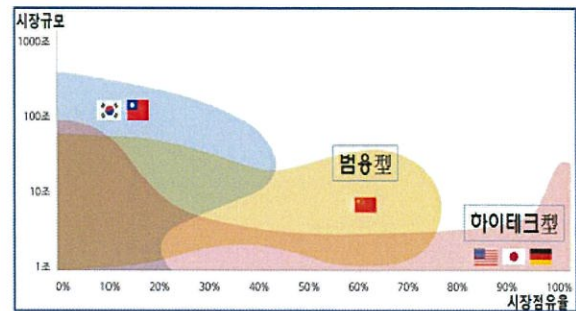
- 의존유형은 크게 범용품목型(中)과 하이테크型(日·美·獨)으로 대별

- 中은 시장규모가 크고, 인건비
우위 등에 따른 노동집약형
성격의 범용 품목 중심

※ 對中수입 2/3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한 부품
(전자부품(206억불), 화학(71억불), 금속(56억불) 등)

- 日·美·獨은 시장규모는 작아도
점유율이 높은 하이테크형 중심

< 주요국의 품목 포지셔닝 >



- (변화) '美·中 무역분쟁', '일본 수출규제', '中 코로나19' 사태로
과거 생산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위주로 변화 추세

- ① 국내 자체 공급망 확보 등 전세계적으로 내부화 추세가 강화

* 글로벌 GVC참여도(한국은행, '18) : ('08) 14.1% → ('15) 13.2% → ('17) 12.9%

- ② 단순한 인건비 경쟁력보다 수요기업 연계성, 수급 리스크,
인프라 발달정도 등을 고려한 공급망 분산 추세

* 현재는 상품교역의 약 18%만이 인건비 절감형”(맥킨지글로벌연구소, '19.1월)

- ③ 전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함께, 산업-통상정책을 연계
하며, 자국 권역중심 밸류체인화 노력

* (미국) USMCA 원산지 규정을 기존 NAFTA 수준보다 강화(북미 內 자동차생산확대)
(독일) 아디다스 스마트공장 등 R&D에서 생산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강화(국가산업전략2030)

◇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다각적 전략

◇ 6대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 ⇨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 가동

*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자동차, 전기전자, 기계·금속, 기초화학

① 우선, 의존도 50%를 차지하는 日(하이테크), 中(범용)에 대한 공급망 분석

② 美·臺·獨 등 나머지 상위 공급국에 대해 공급망 분석 확대

◇ 공급망 특성·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 추진

* 경쟁력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민·관 협업체계 가동, 공급 상황 등 분기별 점검

즉시 대응

○ 천재지변·수출규제 등 통상환경 급변 등 예상 못한 GVC 붕괴 시, 현행 소·부·장 추진체계, 특례제도,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 가동하여 적용

○ 통관·물류, 국내생산 확대, 다변화 등에 필요한 환경·노동제도의 탄력적 운용 등 공급 안정화에 필요한 기업애로 해소에 중점

* '수급대응 지원센터(7개 부처·15개 기관)'를 통해 기업애로를 원스톱 해결 지원

중장기 대응

○ (GVC 재편 대응) ①U-turn 활성화, ②해외투자 유치, ③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, ④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추진

GVC 변화	대응 방향	주요 내용
국내 내부화	유턴 활성화	세제, 입지, 금융 등
	해외투자 유치	현금지원 확대, 무상임대 등
리스크 분산	공급망 다변화	대체처 확보 등
		Milk Run(물류), 고부가가치화 등 희소금속 비축
글로벌화	글로벌 공급망 진입	해외거점 확충, 금융, M&A 등

유형별 대응

① (하이테크형) 반도체·DP·화학 등 하이테크 100大 핵심품목에 R&D*, 다변화, 투자유치·M&A** 등으로 '25년까지 공급안정 달성

* (R&D 세액공제) 세액공제율도 대·중견기업(20%+최대10%), 중소기업(30%+최대10%) 적용

** (M&A 세액공제) 해외기업 인수금액의 5%(대기업), 7%(중견), 10%(중소) 세액공제

- (3대 품목) 불산액(국내생산 2배 확충), EUV레지스트(듀폰 투자유치), 불화폴리이미드(공장 신·증설) 등을 통해 '20년 내 공급안정 완성
- (20대 품목) 수요·공급기업 기술개발(650억원, 40개社), 신뢰성평가(280건), 양산평가(100건) 등을 통해 9개는 '20년 기술자립, '21년까지 공급안정화
- (80대 품목) '20년 R&D에 약 1.2조원을 투입하고, 15개 공공연구에 테스트베드를 구축('19~'20년, 1,500억원)하여 '25년까지 공급안정

< 100大 품목 자립화 >

구분	3대 품목	20대 품목	80대 품목
특성	日本 수출규제 품목	기술자립 시급 품목	중장기 자립화 품목
예산	650억원(추경)		1.2조원('20년)
대응	공장 신증설, 제3국 수입대체, 기술개발	단기 기술개발,	중장기 기술개발, M&A, 수입국다변화
공급안정	'20년內	'21년內	'25년內

② (범용 품목형) 자동차·전자부품 등 對中 수입규모·의존도가 높은 90개* 품목은 재고 확보, 다변화, 생산확대 등으로 수급안정화

* ①수입규모 1억불 이상 + 의존도 50% 이상, ②수입규모 1천만불 이상 + 의존도 90% 이상, ③ 규모·의존도 이외에 특이사항 발생 등 관리가 필요한 품목

- ①조달 애로품목, ②재고 비축품목, ③대체 가능품목 등으로 분류
 - 상시적 모니터링, 재고 확충, 수입대체, 국내생산 확대, 설비자금지원,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공급안정화에 필요한 기업애로 중점 해소

구분	반도체	디스플레이	기계금속	전기전자	자동차 등	화학
	2	1	32	17	19	19
①그룹 (33)	2	1	5	4	10	11
②그룹 (10)	-	-	6	-	1	3
③그룹 (47)	-	-	21	13	8	5

③ (기초 원료형) 이차전지 등 산업 필수 희소금속 중 對中 의존도 높은 (5백만불 이상, 80% 이상) 주요 품목(高위험군 18개) 별도 관리 (⇨적정비축 등)

2-① 핵심품목 중심 유턴 활성화

◇ 유턴기업에 대한 파격 지원 패키지 확대

□ (인센티브) 인건비 등 고정비용 감축, 생산성 제고 등 반대 급부를 담보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충분한 인센티브 확충

○ (세제) 국내 사업장 증설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(금년 중 「조특법」 개정 추진)

<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방안 >

현 행	개 선
· 해외 사업장 청산·양도/축소·유지 후 국내 사업장 신설·창업 → 5년 / 3년간 100% + 2년간 50% 감면	· (추가) 국내 사업장 증설의 경우, 증설로 인한 사업소득*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※ 감면한도: 해외 사업장 축소 수준 고려

* 감면대상 소득과 비감면대상 소득은 구분경리 필요

○ (입지)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을 완화(매출액 중 수출입액 비중 축소 : 30%→20%)하고 유턴기업 입주 허용 추진(항만법령 일부개정, '20.上~)

○ (금융) 4.5조원 규모 중소·중견 유턴기업 등 대상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(산은·기은·수은)

· **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** : ①공장부지 등 구매 ②국내 복귀기업 ③소·부장 사업 대상으로 최저 1.5% 제공 (산은 2조, 기은 2조, 수은 0.5조)

○ (R&D) 산업기술 R&D 사업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 ('20년 上~)

○ (인력) 유턴기업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E-9 지정알선 예외적 허용 (금년부터 既시행, 고용부)

* 다만, 송출국 내 구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선발절차는 동일 적용

○ (컨설팅) 유턴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상향 (최대 1만불→2만불)

○ (국내제도 이행 지원) 중소·중견 유턴기업에 대해 신속한 화학 안전 제도 이행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 및 융자금 우선 지원

* (컨설팅) 장외영향평가서 작성·취급시설 기준 준수 컨설팅 53.5억원 지원 활용 (융자금) 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활용

◇ 유형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

□ 수요-공급기업간 연계형 유턴 지원 신설

- (협력형) 유턴 결정에 최대 관건인 수요기업 납품, 비용 감소 등 차원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 신설 및 패키지 지원

* 「유턴법」상 동반유턴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기업 복귀에만 인정

< 협력형 유턴 제도 신설 >

현행		신설 (협력형)
· 공급망 연계 무관	⇒	· 수요기업-유턴기업 연계
· 산단 우선입주 혜택	⇒	· 맞춤형 패키지 지원 신설

* 소부장 100대 품목, 중국 90대 품목 등 공급망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업종 대상
- 구매협력서, 납품확인서 등을 통해 국내 수요기업과 협력여부 확인

- 특히, 자동화 등 비용 경쟁력 확보·품질 제고·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해 유턴기업에 스마트공장 우선 지원 및 지원수준 확대*(중기부)

* 신규구축 : 최대 1억원 → 1.5억원 / 고도화 : 최대 1.5억원 → 2억원

< 맞춤형 패키지 지원 예시 >

현행		신설 추가지원 (예시)
· 지역투자보조금	+	· 고용보조금 (추가 지원)
· 고용창출장려금		· 지역투자보조금 한도 확대
· 구조조정컨설팅 등		· 스마트공장·자동화설비 지원
		· 마케팅·인력양성·컨설팅 지원
		· 상생형 일자리 지역매칭·컨설팅 등 지원
		· 신뢰성 평가 지원 (「소부장 특별법」)

- (상생형) 유턴기업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 희망 시, 지역 매칭, 컨설팅 등 지원 확대

□ (유치확대) 유턴기업 발굴·지원확대를 위해 전담 T/F 구성·운영

- GVC 대응·수급 우려품목 관련 기업 대상으로 프로젝트 발굴·유치
- 해외 유턴 상담 데스크도 36개로 대폭 확충

* (現) 베이징, 상해 등 12개소 → (확대) 총 36개소

2-2 핵심 분야 국내투자 확대

◇ 국내·외 핵심기업 투자 유치 확대로 생산력 확충

□ (투자유치)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우수 글로벌 기업 발굴·유치

- 해외 소·부·장 우수 기업의 국내 투자(R&D 및 생산시설 등) 확대를 위해 중점 유치대상에 선제적 투자유치 제안·협상 추진

구분	일반 외투 유치	소재·부품·장비 외투 유치
기업 발굴	해외 투자자 투자의향 신고에 따른 수동적 대응	수요기업·산업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중점품목·기업을 집중 타겟팅
유치 활동	1:多的 라운드테이블 위주	투자유치 제안서 先제시, 1:1 심층협상, 정부·지자체 등 활동 집중

- 그린필드(Greenfield)형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 확대 (30 → 40%, '19.11월 운영요령 개정) 등 인센티브 제공 확충

□ (제도개편) 첨단기술·핵심제품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에 대해 과감한 지원

- 약 3천여개의 첨단기술·핵심제품에 투자하는 국내·외 기업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「투자 지원체계 혁신방안」 수립 ('20.上)

< 투자 지원체계 혁신 주요 방향 >

- (방식) 국내·외 기업 차별 없이 인센티브 지원 강화
- (대상) 선택과 집중 → 예시 : **첨단기술·핵심제품*** 관련 투자 기업
* 제조업(반도체, 바이오 등) 및 비제조업(이동통신, 융합SW 등) 33개 분야 2,990개 기술

- 민·관 합동 투자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가 투자 촉진지역을 지정·고시

- 투자 전 과정에 걸쳐 내·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강화 (지자체, 산단공, 코트라 등)

※ 「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」 수립 ('20.上)

2-③ 공급망 리스크 분산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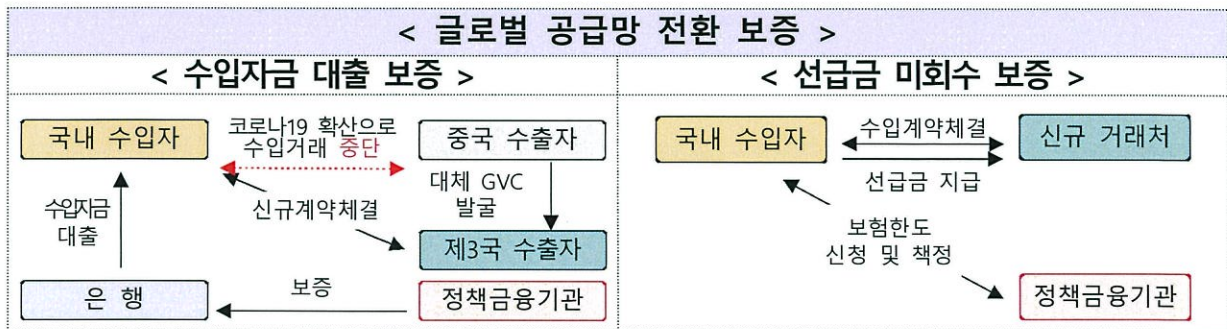
◇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금융 리스크 부담 완화

□ 특정국가에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(GVC) 재편 활성화 및 국내 U턴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규 출시

○ (글로벌 공급망 전환 보증) 해외 생산차질로 국내 원·부자재 수급에 차질 발생시 제3국으로부터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
- * 대상 : (현행) 원자재, 소재부품장비 → (개선) 자동차부품, 마스크용 필터 추가(코로나19 대응)
- * 지원 : 수입자금 대출 보증 및 선급금 보증

▶ 자동차제조 H사는 중국소재 제조사를 통해 와이어링 하네스를 수입(조달)하였으나,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설비 가동의 중단으로 부품수급 및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있어 신규 공급망 발굴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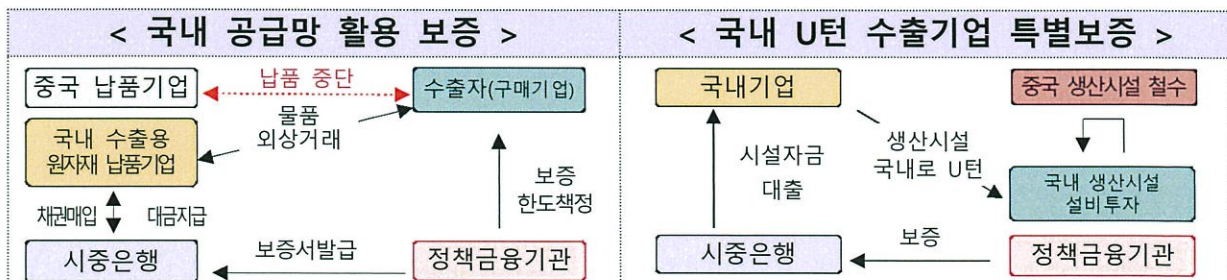
○ (국내 공급망 활용 보증) 수출용 원·부자재 및 완제품을 국내 구매 기업에 판매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

▶ 중국에서 원자재를 공급받는 수출기업 C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기업들로 구매처를 전환 중이나 중국에 비해 높은 단가 때문에 외상거래 필요성 발생

○ (U턴 수출기업 특별보증)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·부품·장비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 지원

- * 국내 U턴 기업수(개사) : ('17) 4 → ('18) 9 → ('19) 16

▶ 중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전자부품 제조기업 A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U턴을 검토하고 있으나, 국내에 생산설비 마련을 위한 자금 애로



◇ 공급망 다변화 등 구조 재편 유도

- (공급망 다변화) 특정국가·기업에 독점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, 제3국 등으로 공급망 분산 추진
 - (패스트트랙) 수입 다변화 품목의 생산투입 연계를 위한 신뢰성 평가 우선 지원, 환경 관련 인·허가 등 패스트트랙 적용 지원
 - (인증 지원) KS 인증 받은 모듈에 사용되는 소재·부품을 제3국 다변화시 서류심사 만으로 인증변경 승인하고, 사후 성능시험
 - * (현행) 소요기간 50일 → (개선) 3~7일 소요
 - (대체 지원) 38개 코트라 무역관에서 대체처 발굴 및 정보제공 확대
- (밀크런* 조달체계 가동) 신속하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업계 공동 구매, 공동물류 등 밀크런 방식 도입 추진
 - * 물류 효율화 차원에서 밸류체인상 다수 공급자의 품목을 모아서 조달하는 체계
 - 주요 소재·부품 생산 국가, 품목별 수요 등을 조사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대상지역·품목을 선정
 -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참여업체를 발굴하고 수요·공급 기업간 협의를 거쳐 물류방식, 비용부담 등 실행방안 마련 추진
- (희소금속 비축 확대)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등 희소금속에 대한 적정재고 비축 추진 (광물공사, 조달청 협조)
 - * 희소금속 중 對中 의존도 높은(5백만불 이상, 80% 이상) 주요 품목(고위험군 18개) 별도 관리
- (기반 강화) 뿌리산업 중심 범용품목 경쟁력 강화
 - '24년까지 기술개발('20~'24, 1,248억)을 집중 지원하고, 산업현장 기술혁신을 주도할 숙련 인력(고교-학사-석사) 양성 ('20, 5,600여명)
 - 뿌리산업 특화단지(33개) 입주기업에 공용시설·혁신활동* 지원 확대
 - * (예) ①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, ②주요 원·부자재 공공구매, ③설계프로그램 공동 활동

※ 「**뿌리산업 중심 범용품목 경쟁력 강화방안**」 마련 ('20.上)

2-④ 글로벌 공급망 진입 강화

◇ 우리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적극 지원

- (공급망 진입) 국제 특허, 수출 촉진을 위한 집중 지원
 - 국내 기술개발·생산 품목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특허 획득 및 수출에 필요한 지원 확대
 - * (특허 바우처) '20년 6억원, 60개社, (수출 바우처) '20년 140억, 300개社
 - 소·부·장 전시회(68회 → 84회)·사절단(32회 → 50회)·상담회(32회 → 40회) 등 수출 마케팅*을 대폭 확대 ('Inside-K 프로젝트' 추진)
- (해외진출 거점 확충) GP 센터(4개→7개) 등 공급망 진출거점 확대
 - * '19년 4개소(디트로이트·프랑크푸르트·나고야·상하이)→'20년 7개소(멕시코·시티·쿠알라룸푸르·아테네)
 - 新남방 주요국에 기술협력·신규 공급망 확장을 위한 플랫폼 설치
 - * (베트남) 소재부품 한-베트남 TASK 센터('19~'23, 250억원), (필리핀) 금형 기술지원 센터 조성('19~'22, 80.9억원), (미얀마) 산업단지 조성 추진중(1,300억원) 등
 - 독일·미국·러시아·이스라엘과 공동 R&D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고, '한-독 소재·부품 협력센터('20.上 개소)' 등 현지 기술협력 거점 확대
 - * 한-독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 설치('19.12월), 한-러 장관급 산업협력대화 신설('20.상)
- (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확장) 국내 기술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M&A*, 해외 우수인력 유치** 세제지원 등 다각적 방식 도입
 - * 인수금액의 5%(대기업), 7%(중견), 10%(중소) 세액공제
 - **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3년간 70%, 이후 2년간 50% 소득세 감면
- (금융 지원) 글로벌 진출, 수입 대체 등 유망 소재·부품·장비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, 1,100억원 규모 투자펀드 신규 조성 (중기부)
 - 소부장 기술 보유 해외기업 M&A시 무역금융 지원 ('20년 1,600억원, 무보)
 - 투자펀드 1조원, 융자펀드 2.5조원 등 소부장 전용 금융지원 대폭 확대

※ 「소재·부품·장비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」 수립 ('20.上)

3

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

◇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대책 병행 추진

- ◇ 단기 처방과 공급망 재편으로 새로운 수출 리스크에 대응
 - 그러나, 특정 품목과 시장에 치우친 무역구조로는 언제든지 다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
 - 변화하는 통상 환경과 글로벌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으며,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무역구조 혁신 노력이 절실
- ◇ 흔들림 없는 견고한 무역구조 구축을 통해 2030년 세계 수출 4대 강국, 무역 2조불 시대 견인
 - ☞ 수출 주체·방식·품목·시장의 4대 혁신 가속화

[주체] 수출 생태계 저변 확대

- 중소·중견기업 수출기업화, 대·중소기업·공공기관 동반 진출 → 역량 있는 수출기업군(群)을 튼튼하게 육성

[방식] 수출방식의 혁신

-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 → 오프라인 위주 수출을 고도화해 새로운 수출 모델을 선점

[품목] 우리 강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 발굴

- 제조 경쟁력과 ICT 인프라에 더해 한류(소프트파워) 확산 → 'Big 3 + DNA'를 중심으로 수출 외연을 서비스까지 확대

[시장] 더 넓은 시장에서 성장 기회 창출

- 통상환경 변화 속에 신흥국들이 빠르게 성장 → 상생형 협력과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돌파구 확보

3-① 중소·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

□ 수출 초보·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지원 확충

- 마케팅·컨설팅 등 기업이 직접 선택하는 수출지원을 강화하고, 스타트업 등에 대한 국내·외 지원거점 확대

* (지사화) 컨설턴트(11→50명), 해외 전담직원(507→530명) 확대 등 (바우처) 기업 선호 서비스를 자동 추천하고, 민간기관과 신규 서비스 발굴

- 해외에 가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전시 인프라* 확충

* 글로벌 수준의 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·관 합동으로 5년간 1.1조원을 투자해, 킨텍스 제 3전시장 등 9개 전시장 신·증축 추진

- 중소·중견 수출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 상품 출시 ('20.4월)

* (기간) 5일 → 1일, (서류) 3종 이상 → 0종

* 가입목표 : ('20년) 2만개사 → ('21년) 3만개사 → ('22년) 4.5만개사 (수출 중소기업의 50%)

□ 성장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

- 내수 중견 등 수출역량 단계별 1:1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지원 기업도 점진적 확대 ('20. 250개 → '24. 420개)

- 수출유망품목을 '세계일류상품'으로 선정해 해외 마케팅, R&D·인력사업 등 지원 확대 (세계일류상품 : '19. 817개 → '21. 900개)

* (현재) 세계일류상품 수출상담회, 온라인홍보 지원 →

(확대) 전략수출지역 무역사절단 파견, 차세대 일류상품 기술개발 추진 등

단 계	Pre-글로벌 →	글로벌 →	Post-글로벌
대 상	중견 후보·예비 중견	월드클래스 300·중견	글로벌 5년 후 졸업기업
지 원	최대 3년, 1억원	최대 5년, 2억원	최대 3년, 2억원

※ 관계부처 합동 「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('20~'24)」 마련 ('20.1분기)

□ 대기업·공공기관 협력을 통한 수출 생태계 강화

- 자동차부품·반도체·에너지·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·공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·중견기업 동반수출 지원

· (GS홈쇼핑) 말레이시아·중국·베트남 등 해외 네트워크 활용 → 중소협력사 해외판로 개척

· (중부발전) 해외동반진출협의회 구성 → 주요국 발전 프로젝트 참여 지원

3-2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방식 혁신

□ (수출지원) 오프라인 전시회 → IT기반 전시회로 점진적 대체

- 시·공간 제약, 일회성 등 기존 오프라인 전시회 한계 극복을 위해, 품목별·테마별 온라인 전시회 집중 개최 (중기부)

* (무역협회) TradeKorea (중진공) GobizKorea (중앙회) 해외전시포탈 등 B2B 플랫폼 활용

▸ (품목) 첨단 소재·부품·장비* 및 화장품·패션·헬스케어·위생용품 중심의 프리미엄 소비재 등 수요확대 예상 품목

* 의료기기, 기계부품, 자동차부품, IT기기, 전기·전자부품 등

▸ (방식) 가상·증강현실(VR·AR) 등 첨단 혁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SNS·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홍보

□ (플랫폼 활용)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지원

- '온라인 판촉(B2C) 사업규모 확대 및 중국 2위 전자상거래 플랫폼 (징둥/JD Fresh 등) 內 '한국 식품관' 추가 개설·판촉 확대 (농식품부)

- Shopee·Q10 등 국가별 유력 채널 판촉을 확대하고, 중국 허마셴성 등 O2O 매장 연계 기획 판촉 조기 추진 및 입점 확대

- 주요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식품 입점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국내 홈쇼핑社(12개국, 23개社) 활용 방송판매 확대 추진 (해수부)

□ (데이터 기반 수출) 제조 강점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수출

- (선도모델) '산업 지능화' 프로젝트를 활용한 新수출모델 개발

- 新남방 국가 중심으로 디지털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생산공정 고도화 서비스 등 산업 지능화 선도모델 발굴 및 수출 지원

* (예) AI-데이터 활용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서비스 → 발전 플랜트 운영·관리 서비스 수출

- (국제협력) 신산업 분야 표준 선점 등을 위해, 한-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실증사업을 통해 新시장 창출

- (기반구축) 역내 국가간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*, 공동시장 창출

* ①싱가폴·뉴질랜드 등이 체결 예정인 DEPA(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) 참여 검토, ②RCEP 체결로 구축된 '전자상거래 대화 채널' 활용 등

3-③ Big 3 + DNA를 바탕으로 서비스까지 수출 외연 확대

□ 'Big 3 산업 + D·N·A'를 새로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

- (미래차) 친환경차+부품+서비스 등 연관 산업 패키지 수출 확대
 - (완성차) EU 환경규제 강화 활용 전기차·수소차 수출에 박차, 수소 충전소를 보유한 對美협력으로 수소차 초기시장 진입 추진
 - (부품) 완성차·부품기업 동반진출 확대*, 부산·군산 등을 부품 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수출 기지화
- * 인나카자흐미안마 등 현대차 생산공장에 부품 납품 확대, 국내진출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 활용 등
- (서비스) 서비스 모델 해외 실증 등을 통해 제품 수출을 넘어 서비스·솔루션·유지보수(O&M) 등 연계산업 수출 확대

- (시스템반도체) 팹리스 글로벌 수요 연계, 파운드리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

*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('20.2월, 화성), 세계 최고 수준의 5 나노 공정 양산 ('20.상) 등을 통해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0% 달성

- (바이오) 글로벌 생산허브 구축, 패키지 수출 등 수출 100억불 달성

* 현지 환자조직의 체취·배양·이식이 가능한 줄기세포치료제 플랜트를 해외병원에 설치
** UAE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, 쿠웨이트 뉴자흐라 병원 등

□ (DNA) 핵심 기반기술인 데이터·네트워크(5G)·AI 수출 활성화

- (5G) 세계적 5G 인프라 투자수요를 활용해, 5G 기술·장비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등 강화

* (삼성) 5G 장비 수출계약('19.10, 日) (SKT) 5G 네트워크 기술 수출계약('19.10)

- (데이터) 빅데이터 플랫폼* 데이터 개방·유통 및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바우처 지원('20년 575억원)으로 혁신서비스 창출

* (빅데이터 플랫폼) 금융, 환경, 교통, 통신 등 10대 분야 플랫폼과 100개 센터를 통해 데이터의 생산·구축에서부터 유통 및 활용을 지원('20. 454억원)

- (AI) 국내 통신사 AI 기기·솔루션을 유럽·동남아 대상으로 수출
→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, AI 투자펀드(3,000억) 등 기반 확대

* (KT) (포르투갈) AI 기반 국제전화 불법번호 탐지 서비스 수출 추진
(홍콩·싱가포르) 호텔용 AI 조명·TV 제어 등이 가능한 기기·솔루션 수출

□ (에너지) 수소·재생에너지 등 그린 뉴딜 중심으로 新수출동력 보장

- (수소) 승용차 이외 트럭, 드론, 연료전지 등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, 수출 다변화를 위해 차세대 연료전지 등 기술개발* 추진

* (드론) '20년 중국미국 시장 수출개시 ▶(연료전지) 中 시범도시 내 10MW 공급 추진 등

- (재생 에너지) 공기업 해외 프로젝트 연계, 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등을 통해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확대

- (전력) 원전·가스터빈 등 수출 생태계 육성 지원

▶ (원전) 신규원전 수출 + 기자재·서비스 등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원전 관련 중소·중견기업 수출 활성화 추진

▶ (가스터빈) 기술 자립화를 통해 글로벌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 진입 추진

* 가스터빈 자립화 개발('20) →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('23~) → 수출지원

▶ (전력 기자재) 전력 케이블, 중전기기 등 전시회·바이어 초청·상담회 개최

□ '한류 확산'을 기반으로 서비스 산업까지 '무역 소프트파워' 강화

- 영화(기생충)·음악(BTS) 등 한류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

- 특히, K-푸드, K-뷰티 등 소비재 연계를 통해 新시장 진출 확대

* 한류스타와 캐릭터·패션·뷰티 등 소비재 기업과 협업상품 개발 지원('20년 60개사)

- 콘텐츠·의료·교육·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

-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

▶ (금융) 서비스 수출기업에도 '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' 지원

▶ (세 제) 영상·콘텐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('19.12월)

▶ (마케팅) 교육·콘텐츠, 프랜차이즈 등 특화 수출지원 운영

※ 관계부처 합동 「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」 마련 ('20.上)

3-④ 新남방 · 新북방 등 특성을 고려한 상생형 협력 강화

□ (新북방) '新북방 협력의 해'를 활용,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

- 한-러 수교 30주년 계기, 9개 다리협력*·소비재 수출의 가시적 성과 창출하고, 미래차, 소재·부품·장비 등 첨단산업** 분야로 지평 확대

* 연내 쇄빙선 LNG 공동건조 10척 수주, 한-러 가스관(PNG) 연결 공동연구 완료

** 현대모비스-안텍스(러1위 검색엔진) 간 자율주행 택시 공동개발 시범운영

- 중앙아는 플랜트·자동차·보건의료 진출 → 기자재·부품 수출 확대

분야	주요 내용
플랜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하라 정유공장 기본설계 계약 ('20.3월, 우즈벡, 6억불) · 파블로다르 합금철 플랜트 기본설계 계약 ('20.下, 카자흐, 2억불) · GPC(Gas Processing and Petrochemical Complex) 수주 추진 ('20.上, 아제르, 30억불)
자동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대차 조립공장 양산 ('20.2월, 카자흐, 부품수출 年3억불) · 버스 400대 공급 계약 체결 예정 ('20.上, 튀르키, 0.6억불)
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타슈켄트 종합병원 건립(우즈벡, 1.2억불), 지방병원 차관 계약 (상반기)

□ (新남방) 산업발전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교역 2천억불 시대 견인

- 아세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주력산업 생산거점* 구축(인니), 경험산단 건설, 전력·에너지 인프라 구축(미얀마) 등 지원

*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혜택·인허가 등 현지정부 협의 가속화

- 우리 기업 브랜드·지재권 애로 해소를 위해, 권리 확보 및 분쟁 대응, 단속기관 협력 등 밀착 지원 (특허청)

※ 관계부처 합동 「**新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**」 마련 ('20.上)

- '20년내 RCEP 최종 타결·서명으로 新남방 메가 FTA 체계 구축, 인니·필리핀·말련·캄보디아 등 양자 FTA* 추진

* 한-인니 CEPA 서명, 한-필리핀 FTA 타결, 한-말련 FTA 협상진전 등

※ 관계부처 합동 「**新남방 무역확대 전략**」 마련 ('20.下)

□ (대형 프로젝트) 신흥시장 중심 수출 돌파구 마련

- 新남방·중동 등 대형 국가개발·방산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, 8,5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설

-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 추진 → 추후 에너지, IoT, 5G 등 동반 패키지 프로젝트 수주 지원

IV. 향후 계획

◇ 코로나19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무역강국 도약 추진

- 민·관 합동으로 국내 및 중국 진출 기업애로 해소체계 운영
 - 애로발굴 → 밀착지원·해소 → 관리·후속지원 등 체계적 지원
 - * 수급대응지원센터(소재·부품 수급), 코트라(현지기업), 무역협회(수출) 등
 - 3월부터 '수출활력촉진단 2020' 가동 → 7월까지 전국 순회
- 수출 리스크 대응 및 플러스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신속 이행

< 주요 후속 지원대책 추진계획(안) >

구 분	주요 후속조치	비 고
2월	▶ 「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 ('20~'24)」	산업부
3월	▶ 「수출활력촉진단 2020」 가동	산업부
상반기	▶ 「新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」	관계부처 합동
	▶ 「투자 지원체계 혁신방안」	산업부
	▶ 「소재·부품·장비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」	산업부
	▶ 「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 방안」	관계부처 합동
	▶ 「뿌리산업 중심 범용품목 경쟁력 강화방안」	산업부
하반기	▶ 「新남방 무역확대 전략」	관계부처 합동